



(01)
권고

에 대하여

라온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팀
3월 보고서

Contents.



KALLAR YMCA 놀이터에서

- 001. '얌'의 목적.
- 002. '얌'의 일정.

- 003. 첫 번째 '얌'
PERIYA KALLAR를,
알다.
- 004. 두 번째 '얌'
RAONATTI KALLAR를,
알다.

- 005. 3월 '얌'의 후기.
- 006. 여담

왜 '얹'의 대하여 인가.

우리의 3월을 돌이켜보면 '얹'의 연속이었다.
'스리랑카, 페리야칼라, 타밀, 곤잠 곤잠 떼리움(스리랑카, 페리야칼라, 타밀어 조금 알아요)라고
이제서야 많이도 아니고 '조금'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체 국내훈련에서도, 그리고 울산YMCA로 내려가서도 들었던
GO TO THE PEOPLE → LIVE AMONG THEM → LEARN FROM THEM → PLAN WITH THEM
→ WORK WITH THEM → START WITH WHAT THEY KNOW → BUILD ON WHAT THEY HAVE
를 한 번 실현시켜보려고 이번 달은 욕심내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배워가는 것에,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에 집중했다.

어쩌면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과 '노는 것' 부터가 우리의 활동의 첫 단추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RAONATTI 10기의 피드백을 반영한 SRI LANKA YMCA도 처음 1달을 '적응기간' 으로 두어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요구할 필요는 없었고, 한국에서 날아 온지 이틀 만에 어둠이 내린 우리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10기에게 전달받은 내용 이외의 정보를 받지 못한 채 곧바로 이 마을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덕분에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마을과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가고 편견 없이 받아들
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번 보고서는 그 '얹' 에 관한 내용이다.



왼쪽부터 1. 한국에서 날아와 새벽 2시가 되어서 도착한 NIGAMBO의 FULL MOON HOTEL에서 KALLAR로 출발하기 전에 코디네이터 빈센스와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 2. 힌두 축제에 갔는데 그곳에서 친해진 친구들이 뽀뽀를 이마에 찍어 주었다. 3. PERIYA KALLAR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슬람 마을인 MARATHAMUNAI에 온 김에 PERIYA KALLAR에 없는 찻집에서 플레인 대판니(밀크티가 아닌 일반차)와 삼무사(혹은 썸싸, 차와 먹는 음식)을 시켜보았다.

'암'의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6	7	8
				1. 마헤스 할머니 약속 2.	1. 스리랑카 도착 2. PERIYA KALLAR로 출발 - 도착	
9	10	11	12	13	14	15
1. 스리랑카 요리 교실(W/ 박산디 엄마) 2. 이사회 멤버인 저스틴 만남 3. 타밀언어교실	1. FOLK HIGH SCHOOL 방문(W/ 저스틴) 2. 쿠말 옆집 아저씨의 초대 3. 첫 생활비 나눔	1. 마헤스 할머니 약속 2. 타밀언어교실	1. 힌두 축제에서 만난 친구, 떼누, 뚜지따 집 초대 2. 타밀언어교실 3. 스리랑카 요리 교실(W/ 박산디 엄마)	1. KALLAR YMCA PRE-SCHOOL 방문 2. 이웃사촌 쿠마아저씨 집 초대 3. 타밀언어교실 4. 힌두학생 카말과 만남	1. 박산디 엄마 손자 30일 잔치	
16	17	18	19	20	21	22
1. KALLAR YMCA 이사회 회의 참석 - 라온아띠 소개 및 도서관 사서 요구	1. ATTI SCHOOL 홍보물 한글판 완성 2. 스리랑카 요리 교실(W/ 박산디 엄마) 3. 타밀언어교실	1. 오리엔테이션 (W/ 니랑가) 2. 타밀언어교실	1. 아띠스쿨 홍보물 완성 2. GS 집 방문 3. FOLK HIGH SCHOOL 방문(W/ 저스틴) 4. 타밀언어교실 5. 아띠 홍보물 영어 완성	1. 스리랑카 요리 교실(W/ 박산디 엄마) 2. 칼무네 방문-아띠스쿨 준비물사기 3. 타밀언어교실	1. 아띠 홍보물 타밀어 번역 완료 2. 쿠말아저씨 집방문 3. 타밀언어교실	1. 쿠말아저씨네 한국어 수업
23	24	25	26	27	28	29
1. 미국선교사 집 방문 2. 칠드런클럽 홍보물 영어 번역완성	1. 스리랑카 요리 교실(W/ 박산디 엄마) 2. 교회특송연습 3. 도서관 오픈 4. 타밀언어교실	1. 아띠스쿨 학교 홍보 2. 타밀언어교실	1. 코이카 학교 방문 2. 힌두학교 방문 3. 칠드런클럽 홍보물 완성 4. 힌두교강의(세바라자 할아버지) 5. 타밀언어교실	1. 뚜지따 생일 2. 코디네이터와 회의 3. 스리랑카 요리 교실(W/ 박산디 엄마) 4. 타밀언어교실	1. 칼무네 YMCA방문 2. 아띠스쿨 SYLLABUS 완성 3. 도서관 회의 4. 타밀언어교실	1. Sri Lanka YMCA 연맹 칼라방문
30	31					
1. 비두세나 집 초대 교회, 힌두학교 홍보 3. 아띠스쿨 application 수거	1. 아띠스쿨 영어분반 시험 2. 코디네이터와 회의					

첫 번째 ‘얌’ PERIYA KALLAR를, 알다. : 마을 #1

위치: 스리랑카 동부 해안
구성: 2천여 가구, 약 8천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
지리: 해안을 따라 길게 마을이 위치, 동부 주요 고속도로가 마을 옆으로 지나감

거주인구 특징:

1. 대다수가 2004년 쓰나미와 이 후 재건 사업까지 경험
2. 일용직 노동자가 다수, 이 외 선생님, 의사, 공무원 등 마을에 필요한 직업군 분포
3. 많은 수의 청년들이 타국에서 일하고 있음

마을의 주요 시설

1. **학교:** 총 5개의 학교가 있음. 2004년 쓰나미 이후, KOICA와 ADB 등 다양한 NGO와 국가에서 마을로 들어와 재건 사업을 진행했음. 마을의 대부분이 재건사업의 바탕이지만, 특히 학교가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음
2. **병원:** 마을 중앙에 페리아 칼라 병원이 위치하고 있고, 주말도 오전에는 문을 열. 단 것을 좋아하는 스리랑카 식문화때문에 당뇨병 치료를 받는 환자가 많음
3. **도서관:** 정부 운영의 도서관이 하나 있음. 100루피알을 지불하면, 1년 동안 회원으로 책을 빌려 볼 수 있음. 2주까지 대여가능하며, 책을 연체할 경우 1일에 5루피알씩 벌금. 도서관에서 신문을 보는 이용자 수가 높은 편이며, 어린이 책(문제집 외의 특히 소설책의 경우) 수가 매우 부족함
4. **시장/상점:** 시장: 마을 곳곳에 슈퍼가 있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으며, 야채의 경우 하루 중 덜 더운 시간 때에 노점상으로 판매함. 옷이나 여타 공산품은 버스를 타고 30분쯤 나가서 읍내 격인 KALMUNA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무슬림들이 주요 거주하고 있는 MARUTHAMUNAI에서 살 수 있음. 일요일 오전에는 외부에서 노점상들이 들어와 마을내의 중심으로 양 옆으로 시장이 열림



PERIYA KALLAR KEYWORD 1 ‘종교’ RELIGION

힌두교 약 90% 기독교(개신교+천주교) 약 10%

힌두 축제: 낯선 곳에, 낯선 종교가 주를 이루는 이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시작부터 운이 좋았다. 힌두교의 가장 큰 행사가 진행 중이었고, 덕분에 힌두교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20여일 동안 매일 저녁 6시 30분경부터 11시까지 진행된 이 축제는 매일 다른 신에게 다른 내용의 의식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에는 옆집 오빠의 도움을 받아 밖에서 관광객 사원 안과 폭죽, 사람들을 구경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원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 힘들면 주저앉아 수다를 떨고, 힌두교에 대해 물어보면서 점차 우리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음식을 먹었다. 매일 축제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불꽃과 신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인들의 춤사위, 그리고 주민들의 기도소리는 금세 혼을 빠트렸다. 복을 빈다는 의미의 ‘아롤헤라’를 주민들과 외치며 이방인이 아닌 칼라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이에 받기라도 하듯, 칼라 주민들의 기도소리는 우리를 칼라주민으로 받아주겠다는 의미로 들렸다. 이 마을의 힌두교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의 삶 자체에 힌두교가 녹아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 요리 수업을 해주시는 박산디 엄마를 따라 개신교 교회에 갔다. 사실, 처음에는 좀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갔다. 타밀어로 진행되기도 하고 워낙 이른 시간부터 이루어진 예배라고 집중도 못하고 많이 졸았었는데, 교회에 있는 YOUTH 모임에서 함께 Special Song를 부르기로 한 때 부터 교회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타밀어로 된 노래를 한국어 발음으로 적고 연습하기도 했고, 어떤 친구가 한국어 찬송가를 배우고 싶다 길래 한국어를 타밀어 발음으로 적도록 도와주면서 더 가까워졌다. 언어는 다르고 노래의 내용도 정확히 모르지만, 노래로 마음이 서로 통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 교회 말고도 몇 개의 교회가 더 있지만, 가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칼라에 들어와있는 미국인 선교사가 일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영어-타밀어 예배에는 몇 번 가보았다. 10여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반 가정집에 모여 성경 구절을 읽으며 설교도 하고 찬송가도 함께 불렀다. 타밀어와 영어 모두로 진행되는 예배라서 따라가기에는 비교적 쉬웠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위에서부터 1. 힌두교에서 중요한 축제인 만큼 스리랑카 동부의 큰 도시인 BATTICALOA에서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와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2. 힌두 축제 마지막 날,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3.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집이나 가게에는 기도를 하는 공간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 4. 미국인 선교사가 진행하는 예배를 끝나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다. 5. 박산디엄마를 따라간 교회에서 성가대사람들에게 타밀어 찬송가를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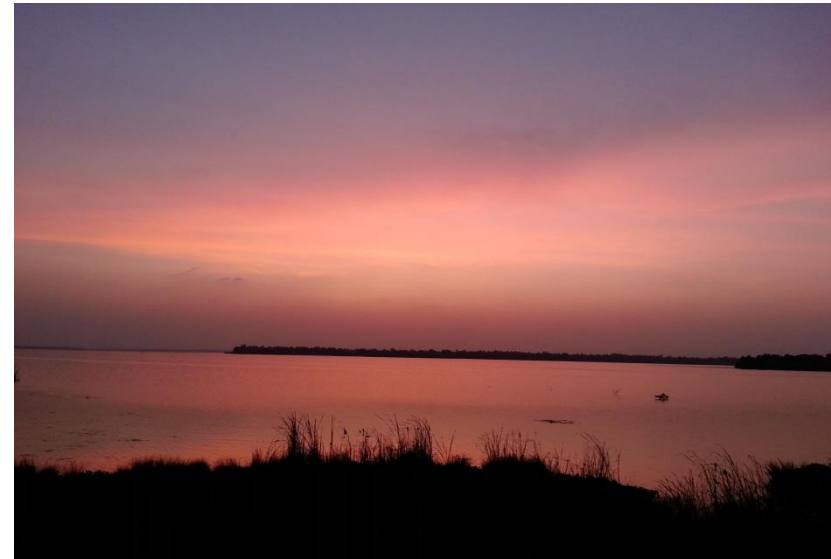
첫 번째 ‘앓’ PERIYA KALLAR를, 알다. : 마을 #2

PERIYA KALLAR KEYWORD 2 ‘바다’ SEA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파도소리가 잘 들린다. 그만큼 조금만 더가면 바다를 볼 수가 있다. 여기 바다는 파도가 세고 깊어서 많이 위험하다. 실제 앞서 언급한 힌두축제의 마지막 날 바다에 뛰어드는 의식을 하다 한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이곳의 바다는 가끔 기분전환을 하러 가는 곳이면서도, 어떤 이에게는 쓰나미에 대한 공포였고, 어떤 이에게는 매일 고기를 잡고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게 하는 생활의 터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PERIYA KALLAR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다를 빼놓을 수는 없었다.

PERIYA KALLAR KEYWORD 3 ‘학교’ SCHOOL

3월 셋째 주에 접어들어 ATTI SCHOOL 홍보를 위해 아이들의 등학교 시간을 노렸다. 4명이 두 팀으로 나뉘어 포스터와 나눠줄 ATTI SCHOOL 지원서와 함께 하루에 2-4개의 학교를 방문했다. 간단한 홍보를 하러 갔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하게 아침 조회시간이나 선생님들께서 수업이 끝난 아이들을 모아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홍보를 할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홍보를 하게 돼서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기회를 준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했다. 이렇게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각 학교의 역사적 배경,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특징 등이 마을의 아이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었다.



교회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나오자 마을에 석양이 물들었다.
마을 입구에 위치한 다리에서 찍은 바다와 석양

PERIYA KALLAR KEYWORD 4 ‘쓰레기’ GARBAGE

이 마을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정말 간단하다. 마당 한 구석에 한데 모아 태우면 된다.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거나, 반대로 집에 가만히 앉아 책을 보아도 이곳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쓰레기 태우는 냄새였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태워도 처리되지 않는 쓰레기들의 경우 마을 곳곳에 있는 공터나 해변가에 버려버린다. 마을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딱히 별 수가 없어서 모두 태우는 줄 알았다. 하지만 조금 지나보니 마을 끝쪽에 쓰레기를 분류하고, 비료를 만드는 시설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원래는 그 시설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원래는 매주 화요일에 시설에서 차를 몰고 돌아다니면서 수거해야 하지만, 4월이 접어들어 지금까지 우리도 차가 돌아다니거나 해당 시설이 작동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쓰레기 처리 시설의 문제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더 큰 문제였다. 화학물품을 태울 때 발생하는 물질들이 몸에 해롭다거나, 음식물쓰레기는 좋은 비료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등 이 문제와 관련된 인식이 부족하기도 했다. 우리도 사실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는 태우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라도 거름으로 만들어보려 현재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첫 번째 '앓' PERIYA KALLAR를, 알다. : 이곳에 사는 사람들 #1



마을 외곽에 있는 쓰나미 아파트에서.

하나, 쓰나미아파트 사람들

2004년 이곳에 쓰나미가 밀려왔다. 마을 어귀까지 물이 들어왔다 나간 시간은 고작 20분. 지척에서 바다가 보일 만큼 가까웠던 칼라사람들은 미처 손 쓸 시간도 없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어야 했다. 이 엄청난 자연재해 이후 스리랑카 정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중국 등 다국적 국가들이 빠르게 원조를 지원했다. 그리고 1년 여 만에 칼라지역의 복구가 이루어졌다. 쓰나미 이후, 마을이 재건 될 때, 각 가정 집에 50%에 해당되는 비용을 정부와 NGO에서 지원했는데, 이 50%를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 아파트 단지였다. 마을과 동떨어져 있어 PERIYA KALLAR가 아닌 줄 알았지만, 구획 상 PERIYA KALLAR와 옆마을인 NEELAVANI의 경계선이 이 아파트 단지 중심을 지나고 있었다. 이곳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나미 당시 해안가에서 100M이내에 거주했던 사람들로, 지금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나가는 어부들이 대다수다.

아파트의 형태는 우리가 보기에 기존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완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주민들의 페인트칠이 다 떨어진 낡은 집에서 방음시설, 마당, 화단 가꾸기는 사치가 되어 버린 듯 했다. 마치 삶의 의욕을 잃은 달동네처럼, 어둠이 짙게 깔린 폐가 같은 원근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아디스쿨 홍보 차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 실제로 보았던 주민들의 삶은 생동감 넘쳤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부모님들은 우리들의 수업에 관심을 가져주셨다. 그리고 이미 10명의 학생들이 등록한 상태이다. 앞으로도 이 아파트 단지는 우리의 주요 관심지역이 될 듯하다.

둘, 쿠말 옆집 아저씨

우연히 만난, 만날 때마다 신선한 자극을 주는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친구다. 개발 NGO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쿠말은 라온아띠가 하려는 일과 비슷한 일을 이 마을에서 하려고 한다. 12월에 콜롬보에 칼라로 이사 왔고, 콜롬보에서 학교 선생님이로 일했던 부인 분도 이번 3월에 이쪽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셨다.

처음 아저씨 집에 초대받았을 때,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고, 우리가 그만큼 이 마을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씀 드렸다. 아저씨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셨고,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중에(현재 마을에서 싼값에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매주 일요일마다 힌두 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셨다. 이 밖에 이 마을의 쓰레기 문제, 아이들의 자존감 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기도 했다. 칼라지역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저씨의 의견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한 후에 라온아띠가 칼라지역에서 떠나도 이 분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칼라지역에서 닥치는 어려움에 있어 이런 멘토같은 분을, 그것도 YMCA를 통해서가 아닌 이웃으로 만났다는 점에서 큰 행운이라 느껴졌다.



쿠말 아저씨와 쿠말 아저씨의 제자이자 힌두스쿨의 선생님인 카말과 마을과 힌두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periya kallar,
batticaloa,
sri lanka.

첫 번째 '앓' PERIYA KALLAR를, 알다. : 이곳에 사는 사람들 #2



자고 있는 아기를 예뻐하고 있는 박산디엄마와 이경단원.

셋, 우리의 엄마이자 요리 선생님, 박산디엄마

박산디엄마는 옆집에 살면서 10기 때부터 우리를 꼼꼼히 이것저것 챙겨 주셨다. 3월 한달동안 쿠킹 클래스를 하면서 엄마에게 스리랑카 요리를 배웠다. 특히 엄마네 집에 아기가 생겼다. 엄마의 첫째 딸 룩시의 아기다. 10기들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우리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봤을 때, 벌써부터 5개월 뒤에 이 아기가 얼마나 자랄까. 궁금했다. 우리의 성장과 함께 아기도 함께 클 생각을 하니, 아기는 우리 랑카팀에게 정말이지 큰 축복이다. 다음 기수도 이 곳에 오고 난 후, 한국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항상 오늘은 뭐 먹지 하고 고민 할 때면 어떻게 알았는지 갔다 주시는 음식들 아무 때나 놀러 가서 TV보고 얻어먹고, 엄마, 아빠, 친형/오빠 같은 스리칸 안나, 누나/언니 같은 룩시, 친구 같은 닐루, 동생 같은 머빈이랑 아기, 그렇게 우리는 점차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다.

넷, 엄한 친구 뚜지따

힌두 축제에서 이경 단원이 사귀어 온 친구, 뚜지따. 이경단원 뿐만 아니라 라온아띠 전체와도 친해져 아띠 집에도 놀러오고, 타밀어가 부족한 우리를 위해 타밀어 흥보물에 글씨를 써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사시를 입혀주고, 스리랑카 노래에 맞춰 함께 미친 듯이 춤을 쳤다. 한번은 뚜지따 생일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뚜지따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이경 단원이 그 다음날 집에 또 찾아갔었고, 둘이 바닷가에 가서 회포를 풀었다. 7월에 결혼을 한다는 우리의 친구 뚜지따와의 인연은 참 재미있다.

다섯, 땅가 뚜레이 므르 앙게 이르까? 마헤스 할머니

‘땅가 뚜레이 므르 앙게 이르까?’ = 땅가 뚜레이 집 어디에 있어요?

쌀을 사러 갔다가 끼리아빔이 너무 먹고 싶어서 겁도 없이 상점 앞에 식료품을 사러온 할머니께 물어봤다. 너무 친절히 함께 끼리아빔을 사러 같이 가주시고 내일 2시에 근처 사거리에서 만나면 맛있는 끼리아빔과 함께 먹는 커피와 삼불을 준다는 약속을 잡았다. 다음날 사거리에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애꿎은 다른 땅가뚜레이 집에 차를 마시고 오는 등 땅가뚜레이를 찾기위해 골목 골목을 돌아다녔다. 결국은 메인 로드의 땅가뚜레이 집을 찾았지만, 땅가뚜레이라는 이름은 사별하신 남편의 이름이었다는 걸.....그때 알았다. 그래도 찾아서 너무 다행이었고, 그날 맛있는 잼과 장아찌를 받아와 한동안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 일 덕분에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서 이 곳 마을 골목골목을 정말 잘 알게 되었다.



뚜지따의 집에서 애리단원 뚜지따 그리고 이경단원.

이 밖에, 힌두 축제에서 만난 친구 떼누와 그녀의 가족들, 고등학생 4총사 친구들, 10기 때부터 주요 거래처인 푸시팜 엄마의 슈퍼마켓, 일요 힌두스쿨에서 만난 카말과 다른 선생님들, 교회에서 울음으로 기도하는 한 여자, 교회 청년부와 성가대 친구들, 바닷가에서 배에 태워준 어부 아저씨, 야채 사러 3일에 1번 꼴로 만나는 요가 아까(언니), 어느 순간부터 친해진 뷔드루세나, 사드루세나 자매 등 우리는 1달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마을에서 만났고, 그 사람들을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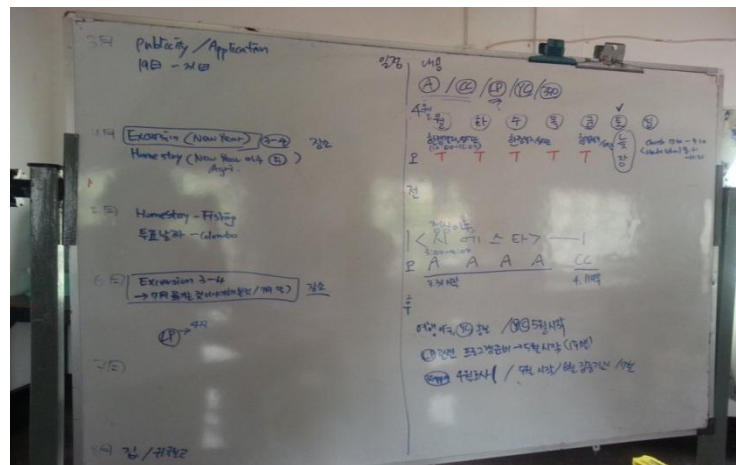
두 번째 '얌' RAONATTI KALLAR를, 알다. : KALLAR에서의 세 번째 RAONATTI #1 '이제까지 우리는 줄곧 주인공이었다.'

ATTI SCHOOL과 관련해서는 RAON ATTI 만의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진행하려 했다. 문제는 KALLA YMCA의 CHILDREN CLUB과 LIBRARY PROGRAM였는데, 10기가 PERIYA KALLAR에서 떠난 이후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스리랑카 연맹 측에서는 실망스럽다 평했다. 즉, PERIYA KALLAR라는 무대에서 조연이 주연을 밀어낸 꼴이었다.

KALLAR YMCA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앞서 우리는 KALLAR YMCA의 4無를 문제로 꼽았고, 이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이며 간접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KALLAR YMCA 자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 그리고 자체 예산이 부재했고, RAON ATTI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자생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거나 예전의 프로그램을 되살려 볼 의지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스리랑카 연맹 측에서는 RAON ATTI를 파견해도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이 마지막으로 파견되는 기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이번 기수에서 KALLAR YMCA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번 KALLAR 팀의 목표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새로이 진행할 프로그램의 '지속성' 이다

우리는 들러리가 되라고 배웠다.
주인공이 빛이 나게 노력하라 배웠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미 우리는 '주인공' 이었다



위에서 부터 1. 3월 18일, 스리랑카 YMCA 라온아띠 코디네이터 니랑가가 와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각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전 기수에 대한 연맹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을 나눴다. 2.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3월부터 8월에 해당하는 일정에 대해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니랑가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두 번째 ‘앎’

RAONATTI KALLAR를,

알다. : KALLAR에서의 세 번째 RAONATTI #2 ATTI SCHOOL

ATTI SCHOOL은 PERIYA KALLAR 지역에서 RAONATTI가 지속적으로 해온 방과후 학교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KALLAR YMCA에서 진행되며, 월/수는 영어, 화는 태권무, 목은 예체능으로 과목을 구성해서 진행했다. 3월에는 이 ATTI SCHOOL을 홍보하고 첫 수업(3.31)까지 진행되었다.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아이들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중에는 등·하교시간에 학교 앞에서 포스터를 들고 지원서를 나눠줬으며, 일요일에는 힌두스쿨과 교회로 포스터와 지원서를 가져가서 홍보했다. 또, 마을 중심과 많이 떨어진 쓰나미 아파트도 방문해 홍보를 진행했다.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총 약 96명이 ATTI SCHOOL에 지원했으며, 아직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과목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기수가 진행했던 ATTI SCHOOL내용을 우선적으로 참고했고, 목요일 예체능부분에 있어 음악/미술/체육을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진행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1. 쓰나미 이후, KOICA가 지은 M.M.T. 학교 아침 조회시간에 교장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ATTI SCHOOL을 홍보했다. 2. 등교 시간에 맞추어 아이들에게 ATTI SCHOOL을 홍보했다. 3. 다섯 학교 중 하나인 CENTRAL COLLEGE에서 홍보를 하던 도중, 힌두 축제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홍보를 도와줬다. 4. 길에서 만난 아이들과 부모님이 관심을 보여 ATTI SCHOOL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앎’

RAONATTI KALLAR를,

알다. : KALLAR에서의 세 번째 RAONATTI #3 CHILDREN CLUB

CHILDREN CLUB(이하 CC)

우리가 CC에 관해 마주했던 첫 쟁점은 오리엔테이션(3월18일) 스리랑카 YMCA 연맹에서 온 코디네이터 니랑가의 질문이었다. ATTI SCHOOL과 CC이 어차피 1.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2. 두 프로그램 모두 아이들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3. 지난 기수의 CC의 비용 대비 지속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두 프로그램을 합칠 것을 요구 받았다. 그에 우리는 먼저 ATTI SCHOOL을 진행시키고 CC에 대해 밤마다 열띤 토론을 벌일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CHILDREN CLUB 프로그램을 새로이 꾸려낼 수 있었다

1. ATTI SCHOOL은 RAON ATTI 만이 진행하는, 후에 ATTI를 대체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속시킬 수 없지만 CC는 KALLAR YMCA 자체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일종의 YMCA 멤버십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2. 같은 맥락에서 CC이 이전 기수에서 비용 대비 지속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CC와 KALLAR YMCA 자체가 RAON ATTI에 너 무나도 의존적인 구조였다.

우리가 꾸려내려는 CC 2기는 ‘지구 - 마을 - 자신’의 순서대로 탐구하게 될 약 20명 정도의 10세-15세 아이들이며, 세부프로그램으로는 한국에서 진행해보았던 지구시민교육과 훈련 때부터 마음먹었던 COMMUNITY MAPPING을 함께 4월부터 진행할 것이다. 동시에, RAON ATTI가 떠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CC담당자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월에는 CC 지원서에 들어갈 질문을 구성했는데, 지원서를 쓰는 것만으로도 ‘자신과 마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CC 지원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동기(The reason why you apply to the Children Club 2nd Batch)
2. 자신의 장단점 (Describe your strengths and weakness)
3.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Which kind of person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Do not write about your dreaming occupation))
4. 마을에서 추억하고픈 장소를 쓰고, 그곳에서 있었던 추억을 쓰시오. (Write down your memorable place in Periya Kallar, and describe the memory in that place)
5. 페리야 칼라의 문제는 무엇이라 보는가 (In your own perspective, what is the problem of Periya Kallar?)
6. 너의 이상적인 마을에 대해 묘사하시오. (Describe your ideal village)

두 번째 ‘얹’

RAONATTI KALLAR를,

알다. : KALLAR에서의 세 번째 RAONATTI #4 KALLAR YMCA LIBRARY

LIBRARY PROGRAM (이하 LP)

3월 16일, 우리는 KALLAR YMCA 이사회 회의자리에서 우리 RAON ATTI 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사서가 도서관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코쿨라지 사무총장이 진행하는 타밀어 수업 때마다 사서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했고, 회의가 끝난 후 2주일이 다됐을 무렵 한 여자분이 우리의 사서로 오셨다.

도서관 사서 아를셀비가 도서관으로 오고 나서 우리는 도서관 사업이 RAON ATTI가 PERIYA KALLAR를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문을 열고 지속될 수 있도록 RAON ATTI에 의존하고 있는 LP를 바꿔보려 시도했다. 금요일 아침마다 LP와 관련된 회의를 사서 셀비와 논의하기로 했고, 첫 회의”(3월 28일)에서 도서관에 시계, 사서 책상, 그리고 사서 장부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후에 벌일 도서관 관련 설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홍보활동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셀비에게 일일사용자 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했다.

타밀어 책만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어 4월 첫 주에 코쿨라지 사무총장이 한국에 가기 때문에 오전시간 때 영어로 된 책들에 대한 목록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KALLAR YMCA에 적은 돈이라도 도서관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운영비용을 지나치게 RAON ATTI에 의존한다고 생각해 예산 확정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람들을 도서관에 모으기 위해 마음 맞는 청년층과 영어 동화책을 타밀어로 번역하는 작업, 영어 또는 타밀어 동화구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에서 부터 1. ATTI SCHOOL 첫 수업이 끝난 후, 비워져 있던 도서관이 붐비게 되었다. 2. 어느 금요일 아침 도서관 회의 시간.



3월 '얹' 후기: 각자의 이야기

#1 아짓 임취업 단원

지난날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인연, 황당한 우연, 기막힌 추억들. 거기에서 느낀 수많은 감정들이 내 가슴을 뜨겁게 적셔왔다. 여행은 삶의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생애 처음으로 5개월간 해외생활이라니! 더군다나 평생 관련이 없을 것 같았던 스리랑카에 살게 되다니 이것은 한국축구가 월드컵16강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들뜨는 일이었다.

그런데 출국 전 가졌던 두려움, 불안함과 달리 이곳에서 접한 기분은 마치 시골 고향집에 있는 듯하다. 익숙지 않은 오감각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전혀 이색적이지 않았다. 타국에서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 행운이다. 하지만 오히려 더욱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다. “외국은, 동남아시아는, 인도계는 분명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를 것이다.”는 망상이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새로운 것 에는 언제나 열정적이고 호기심 가득하지만, 안정적인 것은 자칫 지루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또한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늘었다. 국내훈련에서 보이지 않던 갈등의 씨앗들이 더운 날씨와 어우러져 조금씩 맹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출국 전 캠프에서 부여받은 팀장의 위치로서 어떻게 문제들을 잘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팀원으로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등 3월 한달간 팀내의 문제에 대해 고민했던 시기이다. 이 고민이 끝나면 관계 맺기에 주력할 것이다. 이미 현지인 친구를 사귀어 팀원들을 볼때면 부러움이 한가득 이다. 스리랑카에서도 내 인기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왼쪽 부터 1. 교회 유스모임을 마치고 마을 어귀에 있는 다리에서 찍은 일몰 사진이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등백 머금어 바다에 붉은 꽃송이가 드리울 땐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바라보게 된다. 2. YMCA 건물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사진이다. 칼라지역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는 학벌, 경제적 상황, 피부색 등은 전혀 중요치 않다. 순수하게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악수 한다면 우리는 친구가 된다.

3월 '얌' 후기: 각자의 이야기

#2 수리아 권한마로 단원

처음 스리랑카를 지원 할 땐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섬인지조차도 몰랐었다. 프로그램만 보고 지원 했었다. 합격한 후에 인터넷을 통해, 세계테마기행을 통해,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며 상상하며 너무 설렘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설레긴 마찬가지다. 매일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새로운 사건들, 새로운 음식들, 불교가 대다수인 스리랑카에서 불교는 없고 힌두교가 대다수인 스리랑카 안에 또 다른 세상 Periyakallar. 이런 낯선, 새로운 것들 사이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나를 찾아보려 했다. 그리고 송진호 울산 YMCA 사무총장님이 나에게 내주신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보려 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한 달 만에 쉽게 결론 지으려는 것 자체가 무리였는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엔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와서 생긴 의문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잘해줄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본게 얼마만인지, 처음엔 그냥 마냥 받아들이고 즐겼다. 근데 어느 순간 '딱' 하고 저런 궁금증이 생겼다. 뭘 바라는 것 같지도 않은데 기대이상으로, 슬슬 죄송할 정도로 잘해주시니 조금은 의문이다. '이 의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으면 내가 가져온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4개월을 기대해본다.



왼쪽 부터 1. 힌두 축제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 동네 퍼레이드 후 바다로 뛰어드는 의식. 2. 일요일 마다 열리는 힌두 학교 아이들

3월 '앓' 후기: 각자의 이야기

#3 쓰네하 임이경 단원

운이 좋게 3월 한달 동안 적응기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은 말문이 터져서 말이 많지만, 처음 왔을 때부터 몇 일 동안은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다.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자고 마음을 먹었지만, 정작 나와 다르니까 이해 못해 라고 생각을 했었다. 더욱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게 자신이 없어지고 무덤덤 해지고 말문을 막아버렸다. 또 머리로 느끼는 감정들을 설명하기 힘들어질때 좌절을 했었다. 나의 마르지 않는 눈물샘이 주변사람들을 힘들게 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 감정컨트롤이 힘들어졌다. 그래도 다행히 하루를 정리하는 나눔시간에 수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무척이나 좋아졌다. 특히 힌두축제에서 만났던 내친구 뚜지따로 인해 나를 막고 있던 어떤 벽이 허물어진 계기가 되었고, 뚜지따를 만나고 내가 느끼는 그대로, 내감정이 좀 더 솔직해 졌다.

또 애리가 통역 문제로 힘들어 했을 때 머리를 망치로 한대 맞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항상 그 전날 상의 했던 얘기를 애리가 전달을 하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나 코디네이터와 의견충돌이 있을때 당황한 나머지 입을 닫아버리거나 내가 틀릴까봐 걱정에 앞서 말도 안하고 멀뚱멀뚱 쳐다봤었다. 그리고 애리가 힘들을 토로 했을때 우리는 팀이면서 왜 혼자 싸우게 됐을까 우리는 애리 뒤에서 팀으로써 가지는 든든함 보다는 오히려 부담을 줬던 걸 아닐까 생각을 했었다. 아직 좀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팀은 니가 무얼하든 우린 너의 뒤에 든든히 있어! 라고 믿음을 주는 것 같다.



왼쪽부터 1. ATTI SCHOOL 첫 수업을 끝내고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았다. 2. 교회 유스모임을 갔다가 다리에서 일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자유를 잔뜩 머금은 표정이 압권이다. 3. 위의 사진은 일요일에 교회에서 SPECIAL SONG을 부르고 와서 아쉬운 마음에 옆집 딜루와 사리 입은 기념으로 사진을 잔뜩 찍었다.

3월 '앓' 후기: 각자의 이야기

살리니 강애리 단원



왼쪽부터 1.ATTI SCHOOL 홍보 차 방문했던 일요일 힌두 스쿨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2. 뷔드루 세나, 사드루세나 집에서 사리를 얻어 입었다.

정신 없이 달려온 1달이었다. 생각 좀 하면서 활동해야지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정에 쫓겨 과업에 급급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간간히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이 지면에 담아내라고 한다면, 나는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곳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 내 자신을 소개할 때, 이곳의 사람들은 열 중 아홉은 종교에 대해 물었고, 종교가 없다는 나의 대답에 굉장히 당황해 했다. 사실 이곳에 오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해해보기 위해 성경책을 읽으려고 가져온 터라, 이러한 반응들이 나로 하여금 '이곳의 사람들에게 종교란 무엇이고, 나에게도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아직도 답을 찾고 있는 중이지만, 교회도 가보고 코일(힌두사원)도 가고, 친구들에게 물으면서 굴곡이 많았던 이 마을의 역사와 관련되지 않나 싶다. 종교가 사람들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특히 쓰나미를 겪어왔던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곳의 사람들에게 종교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버텼을까. 이 곳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종교를 믿지만, 공통적으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행복을 빌고 있었다. 없는 이에게는 종교를 권하지만, 있는 이에게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울리는 이 곳의 분위기에 나는 이제까지 가져왔던 종교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줄어드는 듯 하다.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것저것을 배우고 있다. 쿠말 아저씨도 그렇고 부족한 KALLAR YMCA도 나를 정말 성장시켜주고 있다. 통역이라 이곳에 오기 전에 '정보의 집중'을 조심하라는 충고를 받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지인들과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모든 화살이 나에게 오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충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간혹 내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만드는 냉한 분위기에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 팀 내에서 풀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내가 특정 부분에서 무심결에 가졌던 '기대감'때문인 것 같아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내려놓아보려고 한다.

여담 #1



왼쪽부터 1. 공항이 있는 NIGOMBO에서 PERIYA KALLAR까지 가는 도중, 타고 가던 차의 바퀴에 핑크가 났다. 자다가 날벼락! 2. 매일 아침마다 있던 타밀어 수업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한 컷! 3. 집에서 바닷소리가 들릴 정도로 해변이 가깝다. 처음 바닷가에 놀러갔던 날!)

왼쪽부터 1. 뷔드루 세나, 사드루 세나 자매 집에서 사리와 사롱을 얻어 입고 세나 자매와 무지따와 RAON ATTI의 춤사위 한판! 2. 10기의 추천을 받고 두 번째로 KALMUNAI에 나간 날 비싼 가격이지만 걱정하고 먹었던 바부지 아이스크림. 3. 버스 타고 읍내인 KALMUNAI로 숨숨숨.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엉덩이가 아팠다.



왼쪽부터 1. 10기와도 친분이 있던 딜루가 집에 놀러와서 마당에서 흥놀이를 했다. 2. ATTI SCHOOL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에게서 스리랑카 손놀이를 배웠다. 3. 우리의 밤을 불태웠던 힌두 축제. 처음 가본 날 관광객처럼 찍었던 사진이다.

여담 #2



왼쪽부터 1. 타밀어를 잘 못 썼던(지금은 그럴 줄 안다.) 우리를 위해 ATTI SCHOOL 홍보물 작업에 뷔드루 세나와 뚜지따가 함께 해주었다. 2. ATTI SCHOOL 홍보물을 KALLARYMCA 도서관 옆에 붙이고, 아래의 테이블에 지원서를 넣는 상자를 비치했다. 3. ATTI SCHOOL 홍보를 하면서 수업 준비도 열심히였다. 울산에서 단 4번의 수업에 익혔던 태권무 연습중! 몰랐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도복은 우리에게 땀복이었다.



왼쪽부터 1. 전 날 가져왔던 새우를 봐서 다음날 다시 사라 갔는데, 이 대왕 새우가 없었다. 그래서 대하 정도 크기의 새우를 사서 마당에 마른 나뭇잎들을 모아 화로를 만들어 소금구이를 해먹었다. 풍선아트를 위해 가져왔던 바람 넣는 기구가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때였다. 2. 옆집 박산디 엄마의 손자의 30일 기념 파티에 가기 위해 아직 사리를 사지 못해서 한복을 곱게 입어보았다. 분홍색 한복은 이경단원이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한복이고, 빨강 치마의 한복은 이경단원 할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한복이라한다. 4. 한국에는 없는 30일 기념파티가 신기했다. 30일 기념파티 전날 아기의 머리를 이렇게 밀어버린다. 아이를 안고 있는 분은 우리의 형/오빠인 쓰리칸 안나. 4. 동네 어부인 비제이, 해변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마로 단원을 배에도 태워주고 노도 짓게 해주었다. 5. ATTI SCHOOL이 끝나고 애리단원이 놀이터 구석에 쉬려고 앉았는데, 어느새 아이들이 보였다. 그리고 '마로'를 외치며 사진을 찍어달라 즐랐다.

여담 #3

왼쪽부터 1. PERIYA KALLAR이지만, 마을과 너무나 떨어져 있는 쓰나미 아파트의 모습이다. 2. 쓰나미 존 표시판. 마을 곳곳에 있는 쓰나미의 흔적 중 하나. 3.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쓰레기 문제가 일어났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문제의' 쓰레기 처리장.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동네 개들의 아지트이다.



왼쪽부터 1. 오전 7시에 해변으로 가면 어부들이 새벽부터 잡은 물고기들을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다. 2. 우리의 야채 주요 거래처인 요가 아까(언니)의 노점상 3. 힌두 축제의 마지막 날 바닷가로 사람들이 행진하는 모습이다.

왼쪽부터 1. 3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박산디 엄마의 스리랑카 요리 수업! 월/목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수업을 해주셨다. 2. 한 은행이 홍보행사로 음식축제를 해변가에서 열었는데, 놀랍게도 이 행사 담당자가 스리랑카 북부지역인 자프나 YMCA 멤버였다. 3. 타밀어로 연습한 Special Song 을 불렀던 날. 의자왕 취임단원.





〈다음 이야기〉
아띠, 불법체류자가 될 뻔하다?
모기들의 역습

THANK YOU
TO BE CONTINUED